

2023년 1월 22일 주일예배

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(5) “합당한 행함”

고전 9:19~27

I. 시작하는 말

우리는 살면서 나름의 행함은 다 하고 살아갑니다. 그리고 그 행함은 표정과 태도로,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게 됩니다. 하지만 그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.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함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.

II. 중심 말씀

1. 친절해야 합니다.

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친절하셨습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친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사랑해주셨습니다.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.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처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져주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로 인해 승리하게 됩니다. 우리 성도들이 많이 써俚해야 할 것은 얼만큼 낮아지고 얼만큼 포기하고 얼만큼 져 주었는가입니다.

나눔 질문)

2.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

져주는 것은 곧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.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. 즉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져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.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사람들이 한 발짝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할 것인가,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시선이 누그러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.

나눔 질문)

3.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.

운동경기에서 상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뛸 때 절대 아무 방향으로 뛰지 않습니다.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.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 우리가 나름대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름대로의 봉사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방향이 다르다면 모두 헛것이 됩니다. 그러나 그 방향이 뚜렷하고 온전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의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이어야 합니다.

나눔 질문)

III. 정리하는 말

우리는 올 한 해의 삶 아니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져주고 얼마나 낮아지고 나의 행동과 태도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의 씨름이 되어야 합니다. 그 씨름을 온전히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 상급을 허락하십니다.

1. 환영의 시간(Welcome) : 행복한 기억 나누기

◆ 임재찬양

- 1)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
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
- 2)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
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

◆ 마음문 열기 : 한 주간 감사 나누기, 게임

2. 경배의 시간(Worship) :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

◆ 찬송가 “부름 받아 나선 이 몸”(찬323)

- (1)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
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
- (2)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
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 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 없이 드리리다
- (3)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훌로 받으소서 멀시 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
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

◆ 쓸어놓는 기도 : 나의 죄, 나의 아픔, 나의 두려움, 나의 걱정

◆ 주 안에 있는 나에게

- 1)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
 - 2)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
 - 3)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
 - 4)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
- 후렴)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

3. 말씀 나눔의 시간(Word) :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

- ◆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
- ◆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

4. 사역의 시간(Works) :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

- ◆ 교회를 위한 기도 -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
- ◆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-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, 위정자를 위하여
- ◆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-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